

문영숙의 꼭 알아야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9〉 안치혜의 도헌(군수)로 거듭나다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재형은 1895년부터 13년 동안 안치혜 남도소의 도헌(군수)으로 일을 하게 된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낯선 땅에서 그야말로 출세를 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도헌이 된 최재형에게 두 번째 은급훈장을 수여한다.

바로 이때 조선에서는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다. 친일내각을 타도하려는 친러파인 이범진은,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와 함께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다. 이른바 아관파천을 단행한 것이다.

이후 고종은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러시아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선의 국왕이 러시아 관할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 결과 러시아 안치혜와 추풍 일대에 살고 있던 한인 청년 52명이 통역관에 임명되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룡인데, 그는 러시아 추풍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 러시아 대사관의 통역을 담당했고, 고종의 은총을 받아 학부대신으로 임명되었다. 그 외에도 김도일, 유진룡, 홍병일, 채현식, 김승국, 김인수, 김낙훈, 황두진 등은, 모두 조선의 중앙에 진출하여 높은 벼슬을 받았고, 조선까지 벼슬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추풍과 안치혜 일대에는 참봉, 주사, 의관, 참서관, 통정 등 한국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물들이 조선 궁궐의 부름을 받을 때, 최재형도 조선에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당시 최재형 만큼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앞 뒤 정황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치혜 도헌에 막 임명되었던 최재형은 몇 번에 걸친 고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헌에 충실했다.

박환 교수 저서인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에는 최재형이 순국한 후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내용이 실려 있다.

리태왕 전하께서 올미년에 로국 영사관으로 파견하신 후 널리 노만 국경에 정통한 인재를 기르실 제 최씨가 뵈히어서 하루 빨리 귀국하여 국사를 도우라는 조서가 수차례나 내려왔으나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굳게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므.....

—〈동아일보〉 1920년 5월 2일자

위의 기사를 보면 한변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리태왕 전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리태왕 전하는 당시 고종황제였으니,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사람들의 정서로 비추어보면 조선에서 호적도 갖지 못한 노비의 아들인 최재형이 몇 번에 걸친 고종의 부름에 응한다면 대단한 벼슬을 거머쥐게 되는 절로의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아들로 하루아침에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설사 노비출신이 아닌 양반의 신분이라도 조선의 황제가 부르는데 어디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최재형은 고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최재형은 바로 다음 해, 제1차 전 러시아 음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알렉산더 3세의 연설을 듣게 된다.

최재형은 러시아 전체에서 한인을 대표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것이다. 그 후에도 1896년 5월 13일, 최재형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한인대표로 참가하여 황제가 직접 하사하는 예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광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최고로 명예로운 일이었다. 이때 최재형은 또 러시아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최재형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고 한인사회에서는 점점 신망과 존경이 높아졌다.

최재형은 도헌의 자리에서 공무를 보면서 한인교육에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무렵 러시아에서는 각 지방에서 학교를 건립하여 재러 한인 동포들에게 러시아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한인들에게 러시아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이주 초기에는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문교육을 시키거나 학교에 보내는 대신 일을 더 중요시했다.

최재형이 도헌이 된 후에도 한인들의 교육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재형은 러시아 정교회 학교의 초기 학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식 생활방식에 밝았고, 러시아에서 살아가려면 러시아 교육이 필수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따라서 최재형은 한인 동포들에게 러시아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

〈참고서적〉
박환 교수의 〈시베리아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리채운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9회)

자중자에 했던 어머니 이씨 부인



리채운
도서출판 작가교실 대표

무엇보다도 신사임당의 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이씨 부인이었다. 또한 스승과도 같았던 어머니 신사임당을 너무나도 일찍 잃은 율곡에게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존재였다.

신사임당이 절묘한 경지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환경이었다. 첫째 그녀의 빼어난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집안 환경, 둘째 유교 사회의 가장장적인 허세를 부리지 않았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사임당의 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이씨 부인이었다. 이씨 부인은 맑은 어눌했으나 마음을 다 할 줄 아는 덕을 지녔다. 그녀는 늘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암송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고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딸 신사임당을 훌륭한 여류 예술가이자 자녀교육에 성공한 어머니로 길러냈다. 신사임당은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을 지녔지만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어머니를 닮아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또한 탁월했다.

이씨 부인의 일생은 율곡이 용인이씨 대동보에 기록한 〈이씨감천기(李氏感天記)〉를 보면 사임당이 어머니의 성품을 많이 닮았음을 알 수 있다.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맑았으며, 행동거지가 침착하고 조용하였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하는데 민첩하였으며, 일

에는 신중을 기하였지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과단성이 있었다. 약간 학문을 알아 〈삼강행실〉을 구송하였으며 문장으로써 학문을 삼지 않았다. 율곡 이이, 「이씨감천기」

이씨 부인은 신명화에게 시집가서는 시부모가 계시는 한성으로 가서 시부모를 모셨다. 그러나 친정어머니 최씨가 병환을 앓게 되자 외동딸인 이씨는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강릉으로 돌아왔다. 어느 정도 치정어머니의 병이 차도가 있자 남편 신명화와 함께 서울로 가자고하자 이씨가 울면서 말했다.

“여자는 삼종(三從)의 도(道)가 있으니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저의 부모는 모두 노쇠하시고 저는 외동딸인데 제가 없으면 부모는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제가 애통해 우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한마디 부탁을 드린다면 당신은 서울로 가시고, 저는 시골에 남아 각각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신명화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 후 신명화는 16년 동안이나 한양과 강릉을 오가며 살았고 이씨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친정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 사임당과 마찬가지로 외가인 오죽헌에서 나고 자란 율곡은 외할머니에 대한 정이 남달랐다. 외할머니는 율곡의 생애에 있어서 어머니 신사임당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 사임당은 율곡의 나이 1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외할머니 이씨 부인은 딸 사임당보다도 18년을 더 오래 살아 90세까지 장수하면서 율곡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율곡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시묘살이를 마치고 계속되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금강산에 있는 절로 들어가 1년 정도 머문다. 불교의 세계에서도 답을 얻지

못한 율곡은 하산을 하는데, 한양집이 아니라 오죽헌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그 유명한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말하자면 외할머니는 스승과도 같았던 어머니 신사임당을 너무나도 일찍 잃은 율곡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존재였다. 다시 율곡의 글을 보자.

외조모는 올해 나이가 아흔으로 사십날이 멀지 않았고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몸은 벼슬에 매여 있어 찾아가 뵈을 길이 없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명하신다면 지을 수 없는 아픔이 될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병환을 이유로 (무진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급히 강릉으로 돌아와 간병하며 약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외조모님은 거동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력을 근근히 부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타계하시어 다시 회생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차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리왕진정소(辭校理仍陳情疏)」

그 해 11월에 율곡은 이조좌랑이라는 대단한 벼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외조모 병구완을 하겠다고 강릉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워낙 연로하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만다. 율곡은 외할머니의 영전에 이런 애끓는 제문을 올린다.

아버이 뵈시지 못한 슬픔 속에 오직 할머님 한 분 받들어 자나깨나 마음속에 계시옵더니 이제 또한 저마저 버리시옵나이까

율곡이 외할머니께 품었던 정이 마디마디에 넘쳐 있다. 율곡과 외할머니의 특별한 유대는 이씨 부인이 남긴 〈분재기(分財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수전방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노비 및 전답을 율곡에게 상속했다.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관리'가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인재관은 부친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인재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다.

이병철 회장은 평소 '일년의 계(計)는 곡물을 심는데 있고, 십년의 계는 나무를 심는데 있으며, 백년의 계는 사람을 심는데 있다'는 동양 격언을 자주 인용하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가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과장 이상 간부들을 모이라고 하더니 일본 NHK방송에서 방영한 '비단 잉어'서 비디오를 틀어 주었다. 일본최고 품질의 한 마리 비단잉어를 키우기 위한 비단 잉어 조련사 마루씨의 대단한 집념 어린 타큐멘트 프로그램이었다. 마루씨는 색깔이 다른 잉어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켜 홍·백·흑 3색이 조화된 화려한 잉어를 탄생시켰다. 500만 마리의 치어 중 4.5년 후 품평회에 출품하는 잉어는 고작 4~5마리 뿐이었다. 대략 100만 마리 중 한 마리가 선택되는 것이다.

그 한 마리를 위해 나머지 99만 9천 9백 99마리는 버려졌다. “좋은 잉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쌍하다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마루씨는 말했다. 비단 잉어의 이러한 집념과 끈기를 보면서 한 마리의 비단 잉어가 탄생되는데도 이렇진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한 사람의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와 같

은 이치임을 깨닫게 했다.

이병철 회장의 인사철학은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 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였다. 중국의 사서 중 하나인 송사(宋史)에 나온 말로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말 것이며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는 뜻이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건희 회장은 실패했다고 사람을 버리면 인재를 잃는다고 생각했다.

신경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이건희 회장은 어느 날 사장단회의에서 갑자기 '삼성이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실행시켜야 할지를 물었다. 사장들간서 의견이 분분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던 이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인재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랜 전부터 5~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는데,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이나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고 키우는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천재경영론'은 바로 그것이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땅도 좁고 시장도 작으며 자본도 적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인재에 있으며

그게 강력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지 역전문가' 제도 또한 이건희 회장의 의지의 산물이다. 이건희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지역 전문가 제도를 추진하려 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쳐 잠시 접어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전문가 1인당 급여를 포함하여 많게는 2억 원씩 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삼성전자의 이익은 1천 억원이 안 되었고 그룹전체의 이익도 3천 억원이 미치지 못했다. 신경영이후 속도를 낸 지역전문가는 2020년까지 약 6천여 명이 68개 국에 파견되어 육성되었다. 비용으로만 따져도 1조가 넘는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을 만든 배후에는 이들 지역전문가들의 역할과 공이 컸다.

이회장은 신경영 이후 채용방식도 핵심인재 위주로 바꾸면서 이병철 회장의 브랜드였던 관상면접도 없었다. 그리고 인사제도도 연공주의에서 성과주의로 과감하게 바꾸었다. GE 같은 서구식의 강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성과주의를 시행하면서 세계적인 핵심 우수인재를 끌어 모았다. 이러한 새로운 인재경영이 10년 후 오늘날의 초일류기업 삼성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다. 이회장은 2003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전쟁의 시대에는 결국 뛰어난 인재, 창조적인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천재와 우수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게 나의 신념입니다.”

CTN문학관

오혜림 시인, ‘그대 이름은 꽃이다’ 발간

오혜림 시인이 첫 시집 『그대 이름은 꽃이다』를 발간했다.

오 시인은 평생 초등교육에 봉직 한 후 '시사문단'의 신인상과 '문학사랑'의 신인 작품상에 당선 등단했다.

이 시집의 추천사에서 김숙자 문학평론가는 “시인 오혜림은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촉망받는 교육자요, 길을 잃고 헤매는 불우아동들을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이끌어가는 참 교육자이며, 따뜻한 인성의 소유자이다. 충남 교육계에서 오혜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의 생명이 수업에 있거늘 오혜림 선생님은 쫓아무릎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타고난 교육자로 교육계에서 학생들에게 문학 지도를 하여 받은 지도교사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교육청에서 그 점을 인정하고 교원연수를 지명 받아 충남, 계룡, 대전, 세종의 현직



교원들에게 독서와 논술 강의를 하고 있다”며 “고귀한 교직의 마무리로 은퇴한 이후에도 학교기관에서 글쓰기 교사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으로 학교에 나가 아동들을 만나 글쓰기 지도하고 있다”고 썼다.

또 “‘그대 이름은 꽃이다’라는 주제는 참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꽃’으로 지칭하고 있다”며 “누가 자기를 부를 때 ‘꽃’이라고 부르면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오 시인은 이 세상사람 모두를 꽃으로 불러주었다.

오혜림시인은 공주교육대학원 교육상담학과를 전공하고 교육청 주최 백일장 우수지도교사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행복나눔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했다.

현재 독서와 논술 교원 연수강사이자 중등 자유학기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시사문단, 대전가톨릭문학회, 문학사랑협의회, 대전글마중문화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대 이름은 꽃이다』는 오늘 문학사 출판, 값 10,000원

/기금현 기자



가재산
2호1호 문화연구원 원장

삼성은 이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이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IMF 이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제일 큰 회사였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명함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했다. 삼성이 이토록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단연 삼성의 '인재경영'을 꼽는다. 삼성의 비약적 성공을 예의 주시하던 해외의 유수 기업들 또한 이 점을 부러워한다. 세계 기업들이 삼성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여기는 인재경영의 요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삼성의 총수로 취임한 이후 위기의식에 시달렸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1차 오일쇼크('73)와 2차 오일쇼크('79)를 경험하면서 살아남는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기 때문이었다. 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경영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초일류기업을 향한 비전과 목표는 분명했지만 TV나 세탁기 같은 품질경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3류에 머물러 있었다. 이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강력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영 전반에 삼성만의 DNA를 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인재